

## 레미콘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6년도 건설경기 회고

#### 1) 개황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96년중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은 민간소비와 수출(물량 기준)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 8.9% 보다 낮은 7.1%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규모(명목 GNP)는 4,804억달러, 1인당 GNP 10,548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면에서는 민간소비(6.9%)와 수출(물량기준, 14.1%)이 각각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중화학공업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비투자(8.2%)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3.5%)이 계속 부진하였으며 제조업(7.4%)과 건설업(6.7%)도 증가세가 둔화된데 비하여 전기가스수도사업(10.7%)과 서비스업(8.2%)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중 건설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건설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이 활발하였으나 비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및 건설투자동향(전년동기 대비)

(단위 : %)

	1994년	1995년	1996 <sup>P</sup> 년				
			1/4	2/4	3/4	4/4	연간
건설업	4.7	8.6	10.4	6.7	7.5	3.7	6.7
민간건설	2.2	10.7	8.5	2.6	2.9	2.6	3.9
주거용	-1.5	9.3	6.9	-1.7	3.3	-6.4	0.4
비주거용	4.4	14.1	3.8	-5.1	-9.5	1.4	-2.4
토목건설	5.3	12.4	25.6	21.2	17.2	15.2	18.7
공공건설	8.3	1.1	27.5	18.4	19.6	4.3	14.3
건설투자	4.5	8.7	11.2	5.6	7.1	2.8	6.3
건물건설	2.2	10.7	6.4	-1.3	-0.4	-3.7	0.2
기타건설	8.1	5.8	23.8	17.1	19.4	10.0	16.1

P : 추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주거용 건물건설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공장, 상가 등에 대한 신 증축이 감소하였고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건설도 부진을 보여 [표 1]에서와 같이 전체로는 3.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건설은 도로건설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95년도에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철도 및 지하철 건설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도시토목 및 상하수도 건설도 활발하여 14.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반면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비주거용 공장, 상가 등 건물건설이 감소하였고 주거용 건물건설도 부진을 보여 전년8.7%보다 낮은 6.3% 증가에 머물렀다. [표 1참조]

## 2) 건축허가동향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6년 건축허가동향에 따르면 건축허가면적은 [표 2]에 나타난바와 같이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4% 줄어 들었고 이어 2/4분기에 16.7%나 줄어드는 등 부진을 보인 반면 3/4분기중인 7월과 9월에 단독,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증가되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판매시설 및 대규모 업무시설등의 신 증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경남, 경북, 경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꾸준히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27.6%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4분기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전 부문에 걸쳐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5.5%감소세로 돌아서면서 '96년 전국의 총 건축허가 면적은 113,821천㎡로 나타나 95년의 117,328천㎡에 비하여 0.3%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26,862천㎡로, 지난해의 28,549천㎡에 비해 5.9%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처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한 것은 미분양아파트의 적체가 정부의 각종 부양책과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다소 축소하는데 기인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공장, 창고등 공업용과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경기의 하강으로 기업들이 상업용 건물의 신축과 공장의 신·증설 및 시설투자

[표 2] 96년도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

년도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총면적	증감율	주거용	증감율	상업용	증감율	공업용	증감율	기타	증감율
1994	116,221	-1.3	63,387	-8.5	27,501	11.0	13,291	16.9	12,043	-2.5
1995	117,327	1.0	62,614	-1.2	54,713	3.8	28,549	3.3	12,438	3.3
1996	113,820	-3.0	61,062	-2.5	26,862	-5.9	11,921	-13.2	13,971	12.3
1996. 1/4	23,655	-7.4	12,596	-8.3	5,935	-13.3	2,685	-10.2	2,438	24.5
2/4	30,861	-16.7	17,153	-9.3	7,380	-24.3	3,144	29.1	3,182	-19.7
3/4	29,163	27.6	14,182	20.6	7,297	36.5	3,446	12.8	4,237	58.0
4/4	30,141	-5.5	17,131	-5.9	6,250	-5.4	2,646	18.5	4,113	7.3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주택국 건축과

를 기피하여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26,862천㎡로 95년도 28,549천㎡에 비해 5.9%, 상업용건축허가 면적은 95년 13,727천㎡대비 13.2% 감소한 11,921천㎡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설공사계약액 동향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96년 건설공사수주액은 총 73조7,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고속도로등 각종 도로시설과 교량, 항만, 공항, 발전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중심으로 한 토목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95년 24조3,508억원보다 33.6% 늘어난 32조5,283억원으로 최종 집계되어 공공토목이 96년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건축은 관공서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공사발주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9.9%증가에 머물렀다.

민간부문은 41조2,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6.0%증가하였다. 이 중 토목은 신공항,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건축은 주거용이 미분양주택의 적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공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전년 대비 22.3%증가하였다. 그러나 상가, 빌딩, 공장 등 비주거용건축이 전반적인 경제부진을 반영 6.9%의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5.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한편, 96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이된 주택은 당초 계획 550,000호를 7.7% 초과한 592,132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95년의 619,057호보다는 4.4%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감소세 가운데서도, 수도권지역에서는 서울 1.1%, 경기도 9.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한 271,927호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주택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공사, 지자체 및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공공부문에서는 목표 20만호를 16.1% 초과한 232,285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민간부문에서도 계획된 35만호를 2.8% 초과하는 359,847호를 건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96년도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5년	1996년					전년대비 증감율 (%)	
		1/4	2/4	3/4	4/4	년간		
총 계약액	599,285	127,061	174,420	167,401	269,003	737,885	23.1	
공공	합 계	243,508	50,538	69,027	72,071	133,647	325,283	33.6
	토 목	173,706	43,876	45,213	53,037	106,414	248,540	43.1
	건 축	69,802	6,662	23,814	19,034	27,233	76,743	9.9
민간	합 계	355,777	76,523	105,393	95,330	135,356	412,602	16.0
	토 목	31,751	8,774	11,717	7,880	11,408	39,782	25.3
	건 축	324,054	67,749	93,676	87,447	123,948	372,820	15.0

[표 4]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6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지 역	업체수	공장수	생산능력(B/P)		믹트릭(R/T)	시멘트사이로 (TON)	가동률 (%)
			기 수	천m³/년	보유대수(대)		
서울·경인	107	154	244	154	7,324	157,900	53.8
강 원	64	72	76	72	1,128	33,130	32.5
충 북	42	43	51	43	892	21,500	40.3
대전·충남	67	81	107	81	1,940	68,640	38.3
전 북	41	46	60	46	1,022	34,480	33.5
광주·전남	59	74	89	74	1,860	46,650	40.6
대구·경북	86	96	125	96	2,215	92,390	40.7
부산·경남	91	103	149	103	3,153	98,565	43.3
제 주	13	13	17	13	275	8,980	30.7
합 계	532	682	918	682	19,809	562,235	43.6

-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 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 2. 96년 레미콘산업동향

96년도에는 미분양주택적체와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둔화 속에서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영향으로 총 532개업체 682개공장에서 12,580만m³가 생산되어 전년 11,480만m³대비 9.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6년말 기준의 전국 레미콘업체수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532개업체, 682개 공장으로서 518개업체 653개공장에 비하여 14개업체 29개공장이 증가한(93년 34개업체 26개공장, 94년 32개업체 48개업체, 95년 18개업체 43개공장의 증가) 것으로 최종 집계 되었다. 이는 레미콘업체 및 공장의 증가 현상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레미콘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들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악화가 그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풀이된다.

이렇듯 경영환경의 악화는 레미콘제조공장들의 낮은 가동률에서 잘 나타나 있다. 96년도 연간 총생산능력은 2억8천829만m³으로 전국 평균 가동률은 전년 43.3%보다 0.3% 증가한 43.6%를 기록하였으나 아직 5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을 보임에 따라 레미콘업체의 경영난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와, 아파트건설 등 건설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및 공업지대를 포함한 지역들인 서울·경인지역(53.8%), 부산·경남지역(43.2%), 대구·경북지역(43.2%), 광주·전남지역(41.3%)의 가동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40% 미만의 저조한 가동률을 나타내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레미콘 제조용으로 각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 사이로의 총 비축능력은 562,235톤으로 이것은 전국 일일평균 레미콘

[표 5] 96년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³, %)

지역	수요별	1996년	1995년	증감율
서울·경인	민수	41,797,497	36,979,538	10.9
	관수	5,632,631	5,760,291	
	계	47,430,128	42,739,829	
강원	민수	4,845,201	4,024,186	16.7
	관수	1,426,621	1,348,637	
	계	6,271,822	5,372,823	
충북	민수	4,657,769	4,497,379	4.9
	관수	969,022	867,493	
	계	5,626,791	5,364,872	
대전·충남	민수	10,283,701	8,784,915	18.6
	관수	2,078,868	1,637,931	
	계	12,362,569	10,422,846	
전북	민수	4,607,508	4,110,085	15.9
	관수	1,502,905	1,161,085	
	계	6,110,413	5,271,170	
광주·전남	민수	8,842,205	8,201,903	7.1
	관수	2,031,872	1,949,197	
	계	10,874,077	10,151,100	
대구·경북	민수	12,673,617	12,069,146	2.8
	관수	3,117,229	3,295,916	
	계	15,790,846	15,365,062	
부산·경남	민수	16,380,150	15,294,202	7.1
	관수	3,409,863	3,175,560	
	계	19,790,013	18,469,762	
제주	민수	1,093,902	10,030,109	▲1.6
	관수	455,204	543,524	
	계	1,549,106	1,573,633	
합계	민수	105,181,550	94,991,463	9.7
	관수	20,624,215	19,739,634	
	계	125,805,765	114,731,097	

출하량을 50만 톤으로 보았을 때 1개 레미콘 공장당 약 3.6일정도의 시멘트를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레미콘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 중 레미콘은 5,650만9천m³를 생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5,488만9천m³보다 3.0%의 소폭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수요의 감소 혹은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총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적체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었으며 5월 이후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가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업체와 허가관청과의 갈등에 의한 생산차질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에서 수요대비 시멘트 공급물량이 50-60%대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인 시멘트 수급난이 가중되었고 수입물량마저 수입단가의 상승요

인으로 인한 수입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공급난을 겪음으로써 레미콘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5,984만2천㎡ 대비 15.8%증가한 6,929만6천㎡의 레미콘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3/4분기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공단조성, 업무·상업용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 데다 가을 성수기부터 심각한 파동이 우려되었던 벌크시멘트 수급사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5월이후 지연되었던 이월물량이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됨으로서 전년 2,612만2천㎡보다 무려 28.8%증가한 3,363만7천㎡의 레미콘을 생산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남지역이 택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시설등과 같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8.6%증가한 1,236만2천㎡를 출하하였으며 서울경인지역도 SOC관련 시설물과 수원영통지구, 부천·김포지역의 아파트공사와 서울분두리지역의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중심으로 4천743만㎡를 출하하여 전년에 비해 10.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은 각각 7.1%, 2.8%, 7.1%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수요의 둔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전년대보다 1.6%감소한 154만9천㎡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수요별로 레미콘생산량을 구분하여 보면 민수는 전년 9,499만1천㎡보다 10.7%증가한 1억518만1천㎡를 생산하였고 9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관수는 공공부문건설의 호조에 따라 2,62만4천㎡를 생산하여 4.5%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95년 17.2%에서 16.4%로 0.8%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성장률은 93년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관수가 전체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97년 1월부터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을 턴키베이스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표 6 참조]

96년도 레미콘산업의 특징은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의 수급 불안정으로 레미콘생산의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수급의 불안정이 아닌 국내 시멘트의 생산규모가 내수시장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레미콘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관수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공사의 조기발주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주도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관수가 전년 마이너스성장에서 탈피하

[표 6] 년도별 민·관수 점유비 변동 현황  
(단위 : ㎡, %)

수요별 년도	민 수	관 수	총 계
1990년	47,759,791 (81.8)	10,655,464 (18.2)	58,415,255 (100)
1991년	65,645,476 (80.9)	15,484,651 (19.1)	81,130,127 (100)
1992년	67,198,634 (77.0)	20,018,333 (23.0)	87,216,967 (100)
1993년	71,528,120 (78.5)	19,543,054 (21.5)	91,071,174 (100)
1994년	85,829,051 (80.5)	20,762,884 (19.5)	106,591,935 (100)
1995년	94,991,463 (82.8)	19,739,634 (17.2)	114,731,097 (100)
1996년	105,181,550 (83.6)	20,624,215 (16.4)	125,805,765 (100)

주) ( )는 전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요별 점유비 임.

여 4.5%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원자재 수급동향

#### 1) 97년 골재수급계획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7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97년 건설공사용 골재수요는 96년 214,996천<sup>m</sup>보다 3.2%증가한 221,787천<sup>m</sup>로 추정하였으며 전체 골재 소요량의 88.9%에 해당하는 197,32천<sup>m</sup>는 허가를 받아 공급

하고 나머지 24,462천<sup>m</sup>는 각종 개발사업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허가공급계획에 따르면 하천골재는 56,905천<sup>m</sup>, 바다골재가 53,389천<sup>m</sup>, 산림골재가 73,459천<sup>m</sup>, 육상골재가 13,572천<sup>m</sup>로서 부존량이 감소되는 하천골재의 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쇄석골재의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골재의 공급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장기적인 골재수급방안으로 '93년부터 시작한 전국의 골재자원기초조사('97년 완료)를 토대로 골재부존지역의 채취가능여부를 확인·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표 7] 97년 골재수요 전망  
(단위 : 천<sup>m</sup>, %)

구분	년간(배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모래	103,574(46.7)	18,954	32,419	28,586	23,615
자갈	118,213(53.3)	21,633	37,000	32,628	26,952
합계	211,787(100)	40,587	69,419	61,214	50,567

주) 추정방법 : 부문별 건설투자 전망치×골재투입 원단위  
(국토개발연구원)

#### 2) 시멘트 수급동향

96년 시멘트는 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시멘트 저장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8-20% 정도 감소하여 재고물량의 확보가 원활하지

[표 8] 97년 시·도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sup>m</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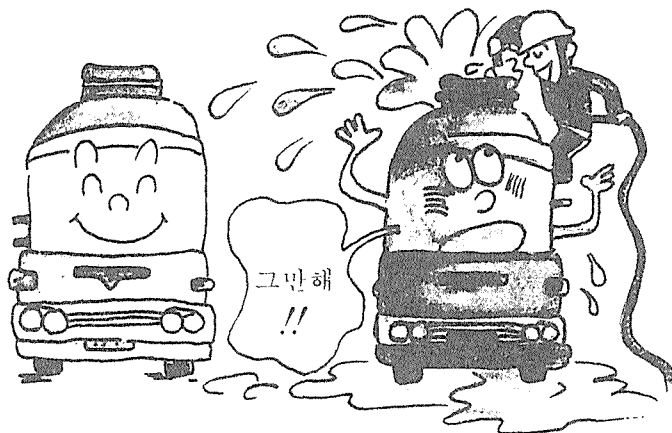
	수요	허가공급계획					비허가	반입	반출
		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서울	30,029	-	-	-	-	-	5,638	32,391	-
인천	7,592	30,236	-	29,536	700	-	-	8,425	31,069
경기	43,981	41,290	13,031	4,300	22,700	1,259	5,824	24,558	29,691
강원	9,980	9,680	3,891	250	2,229	3,3101	389	-	89
충북	9,315	9,046	3,510	-	4,089	1,447	269	-	-
대전	7,580	1,210	-	-	1,210	-	220	6,150	-
충남	18,369	25,537	1,500	11,964	8,973	1,100	6,500	1,297	12,965
전북	7,984	8,306	1,040	-	4,923	2,343	685	290	1,297
광주	5,044	1,159	-	-	-	1,159	544	3,341	-
전남	7,598	14,687	983	7,339	5,099	1,266	648	-	7,737
대구	10,590	5,020	4,237	-	693	-	1,000	4,570	-
경북	16,246	20,816	15,185	-	4,408	1,223	-	-	4,458
부산	15,484	4,538	3,134	-	1,404	-	2	10,944	-
경남	21,555	26,365	10,304	-	15,836	225	2,648	-	7,458
제주	2,440	1,435	-	-	1,195	240	95	910	-
합계	221,787	197,325	56,905	53,389	73,459	13,572	24,462	92,876	92,876

못하였으며 특히 전남장성의 고려시멘트와 강원도 옥계의 한라시멘트가 지역민원 및 환경문제로 석회석 채취가 일시 중단되어 시멘트 생산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은 5,727만톤) 재고물량의 부족과 생산차질로 상반기에 심각한 시멘트수급 불균형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5월 하순부터 시멘트를 관세 할당품목으로 지정 하는등 적극적으로 시멘트물량을 반입하여 총 354만톤의 시멘트가 수입됨으로써 여름철 비수기를 지나 안정적 추세로 수급이 이루어졌다.

97년 시멘트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시멘트 총 생산량은 고려장성공장의 정상화와 쌍용,

한일, 한국고로, 성신 등의 생산시설 증대로 96년보다 다소 증가한 57,800천톤에 이를 전망이다이며 내수는 건축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지자체에 의한 지역 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대선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토목부문이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96년보다 다소 증가한 61,0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수급 규모상 현재의 공급능력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18.3%증가한 약4,000천톤의 시멘트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현장에서의 레미콘에 대한 물타기(加水)는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므로 절대 금지한다.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배탈이 난다